



“공처럼 둥글게 세계는 하나”

평화 월드컵 기원 4대 종교인 축구대회 현장

2006 독일 월드컵을 보며 앞둔 5월 25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이 '평화 월드컵'과 종교화합을 기원하는 축구대회를 열었다. 불교팀 정범 스님(왼쪽)과 가톨릭팀 선수가 공을 잡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2006 독일 월드컵 개막을 보며 앞둔 5월 25일,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4대 종교인 축구대회가 열린 과천 관내체육공원 운동장. 승복 대신 하늘색 축구 유니폼을 입은 스님들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개신교 목사들과 마주했다. 수성이나, 탈환이나. 첫 대회 우승팀인 개신교팀과 지난 대회 우승팀인 불교팀의 개막전. “파이팅!” “즐겁게 축구합시다.”

첫발질 · 헤딩에 터지는 웃음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상대팀 선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스님과 목사들.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공을 빼앗고 빼앗기는 혼전 속에서도 양팀 선수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목사의 첫발질에 웃고, 스님의 헤딩을 보고 또 웃는다. 그러나 0:0의 균형을 오래 가지 못했다. 개신교팀이 멋진 발리슛으로 첫 골을 성공시키며 균형을 깬 것이다. 한 골을 뒀던 스님들, 골을 만회하려는 투지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슬쩍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진로를 방해했다가 심판에게 지적당하는 반칙이 늘어난다. 응원단의 열기도 덩달아 뜨거워진다. “우리 스님 파이팅! 잘 한다!” 불교팀 공격수로 나선 정범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서울 육천암 신도 20여명과 정경 스님이 선수로 뛴다는 소식을 들은 보라매법당 신도 10여명이 응원소리를 높인다. 상대팀의 파인플레이에는 박수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연출됐다. 그러나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은 높았지만 모처럼만에 조성된 종교간 화해 분위기가 더 높았다. 상대선수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불교팀은 후반전 종료 직전 한 골을 더 허용했다. 2:0으로 승리한 개신교팀은 불교응원단에게, 게임에서 진 불교팀은 개신교응원단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어 진행된 원불교팀과 가톨릭팀의



골문을 향해 힘차게 슛을 날리는 불교팀. 경기는 일반적으로 몰아친 원불교팀의 2:0 승리로 끝났다.

승패 보다 함께 뛰어 흘린 땀이 더 중요
이날 축구대회는 불교에서 조계종 총무원, 가톨릭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개신교에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원불교는 중앙총부 문화사회부가 대표로 참가했다. 종교인 축구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처음 열렸다. 불교와 개신교가 참가한 첫 대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가톨릭과 원불교가 동참하는 4대 종교로 확대됐다. 정범 스님은 “4대 종교 축구대회는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살을 맞대고 호흡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 가 된 것 같다”며 “월드컵 열기에 의존하지 말고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털어놓았다. 4대 종교 대표팀은 팀마다 25명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각 두 게임을 뛰었다. 불교팀은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을 선수단장, 사회국장 혜운 스님을 감독으로 중앙총무기과 중

2002 한·일 월드컵 계기로 첫 대회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팀 참가

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님들과 중앙승가대학 학인, 각 사찰에서 선발된 스님들로 선수단을 꾸렸다. 두차례의 연습경기를 개최하며 호흡을 맞춰왔지만, 개신교팀의 선전에 고배를 마셔야 했다. 희망을 집기에는 일했다. 가톨릭팀과 준결승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 중앙승가대학과 개신교팀의 친선경기에 이어 시작된 준결승전. 불교팀은 경기에서 열린 땀방울에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기도를 담았다. 승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가톨릭팀과의 경기에서 응원단이 고대하던 골이 터져 나왔다. 수비수를 제치고 멋진 터닝슛을 한 지담 스님(육천암이 첫 골의 주인공. 이에 질세라 가톨릭팀도 선수교체로 전력을 강화시켜 불교팀의 골망을 흔들었고, 승부는 무승부로 끝났다. 사이좋게 공동 3위를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가장 뒷번호 25번을 단 중앙승가대 학인 혜복 스님이 불교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가장 열심히 뛰면서 팀에 활기를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

원불교팀 우승...불교·가톨릭팀 공동 3위
개신교팀과 원불교팀의 결승전. 팽팽하던 승부는 체력에서 앞선 원불교팀으로 기울었다. 종료직전 결승골이 터져 나왔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들로 구성된 불교 응원단도 환호했다. 수성도 탈환도 아니었다. 더욱이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그라운드를 함께 누비며 땀 흘린 것만으로도 이날 대회의 의미는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 불교팀 감독 혜운 스님은 “축구 유니폼을 입고 4대 종교인 모두가 한마음을 이룬 것처럼 독일 월드컵에서 각 국의 선수들도 모든 세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경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과천/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4대 종교인들이 '평화 월드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파인플레이가 나올때마다 박수를 보내는 불교응원단.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는 스님팀과 목사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전자파 장애실험필

건강에도 최고!
선물에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 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담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 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인기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의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